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9월 4일(주일) 제1114호



사진은 지난해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하는 한가위”

온누리M미션, 이주민 위한 추석집회 봉사자 모집

‘러스타’ 14~16일, ‘HARVEST 2016’ 16~18일 개최

(러시아어 유학생 연합집회)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보내는 한가위 행사가 개최된다. 온누리M미션이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제1회 러스타(RUSTA)’와 ‘Harvest 2016’ 집회가 바로 그것.

러스타는 러시아 언어권 유학생들을 위한 부흥집회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러시아 유학생, 러시아 연방 출신 청년, 러시아에서 유학한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다. 바실리 목사, 김블라드미르 목사, 한알렉산드라 목사, 유세르게이 목사, 아르쥔 목사, 배드리프리아 목사, 나탈리아 사모가 리더십, 재정, 예배,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

‘Harvest 2016’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Jump Up’을 주제로 열린다. 네팔, 몽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450여 명이 참석한다.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NGO 더멋진세상에서 후원하는 외국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Harvest 2016’에서는 세 번의 예배와 두 번의 특별강의, 국제문화축제, 나라별 모임, Aqua Adventure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바랏 목사, 레비 전도사, 노규석 목사, 가나 목사, 김만순 장로가 강의한다.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집회를 섬겨줄 봉사자가 필요하다. 러스타 집회는 어린이사역, 중보기도, 주방에서 섬길 봉사자 20명, ‘Harvest 2016’은 예배 지원, 주방, 안내접수, 간식, 행사 진행, 어린이사역, 사진촬영, 영상편집, 셔틀운행, 의료, 행사장 정리 등을 도와줄 봉사자 150명이 필요하다.

문의: 러스타 010-3016-9787

Harvest 2016 010-3937-3927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신임 다락방장 16명, 신임 순장 154명 임명

공동체 목양대회 ... “다음세대 세워갈 것” 다짐

어제(3일) 열린 ‘2016 하반기 목양대회’에서 신임 다락방장 16명, 신임순장 154명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리더십들에게 “다음세대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 달라”고 권면했다. 이날 목양대회에서는 차세대와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

는 자리도 마련됐다.

차세대 노희태 목사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차세대를 이해해주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 달라”고 했고, 대학청년부 김승수 목사는 “청년들을 공감해주고 믿음의 모델, 삶의 멘토가 되어 믿음을 계승해 달라”고 부탁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말씀과 기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것”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집회 1,125명 참석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순례자의 정체성이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였다.

지난 2일(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는 다시 한 번 순례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125명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뜨겁게 고백했다.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에서는 피터 모든 교수(스펠턴 대학),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했다<관련기사 4-5면>.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서빙고 온누리교회
정전 안내

12일 08시~13일 08시

서빙고 전기실에서 9월 12일 오전 8시부터 13일 오전 8시까지 노후된 변압기 2대를 교체한다. 전기안전 사고 대비를 위한 공사다. 이 기간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는다.

문의: 02-3215-3120

선교_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의 꿈 2면 기획_ 그래서 나는 순례자입니다 4-5면 대담_ 한국어 선교학교 첫 선 7면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의 꿈이 영어간다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고



시험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비삽'.



정성렬 PM(좌)과 아리주마(우).



현재 공사 중인 사막 도로.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다. 주민들이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고립된 곳에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서부터 생긴 꿈이다. 그 꿈이 영어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2년부터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낙후된 의료시설, 교육, 환경, 식수 등을 차례차례 개선해 나갔다. 이제는 주민들의 자립을 위하여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과 도로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와 NGO 더멋진세상의 관계가 이토록 끈끈하다. “세네갈 정부보다 NGO 더멋진세상을 더 믿는다”고 할 정도로 돈독하다. 세네갈 청년 아리주마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시범농장을 운영하면서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를 이어 해오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법도 한데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동안 NGO 더멋진세상이 본나바 마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리주마가 살고 있는 세네갈 본나바 마을은 유명한 관광지 장미호수(Lac Rose)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총 4개 마을(게르 맘나르, 게르 발라, 게르 앓산, 게르 마름벵)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 5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본나바 마을은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 근교에 위치해 있지만 사막이고, 중간에 장미호수가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거의 고립된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지리적 영향 때문에 마을주민 38%가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45%는 7세까지 다니는 코란학교만 졸업했다. 초등학교 졸업률이 10%에 불과

하다. 마을 주민 8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정(평균 10명)당 월 평균수입이 최소 2달러에서 최대 100달러 이하다. 마을 주민 31%가 빈곤을 겪고 있으며, 53%가 실업상태다. 주요 소득원인 농업은 발작물이 대부분인데 생산성이 낮다. 사막지대이다보니 작물을 기르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을 줘야 한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같은 지리적 영향으로 고립되고, 열악한 본나바 마을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이곳에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교육, 환경, 식수개선 사업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상당 부분 개선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자립이었다.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진정으로 더멋진마을이 되기 때문이다.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

본나바 마을 사람들의 자립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던 NGO 더멋진세상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농촌 소득증대사업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마을이 고립에서 벗어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들의 인권까지 높일 수 있는 일거사득(一舉四得)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KOICA와 협력해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년 동안 본나바 마을에서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차 사업이 실시된다. 현지에는 농업담당자 정성렬 PM(Project Manager)을 파견했다.

“1차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토양을 분석하고, 다양한 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농업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연농업은 미생물이 기반이다. 사실 이곳 사람들에게 자연농업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미생물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미생물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흙에 사는 생물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했는데 쉽지 않더군요. 실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올해 상반기는 미생물을 이해시키기 위한 실험의 연속이었다. 더불어 생산성이 높으면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선정해야 했다. 정말 많은 작물을 재배해왔고, 실패도 많이 했다. 지금은 수많은 작물들이 시험농장에서 자라고 있다. 대표적인 작물이 '비삽'이다. 비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주로 차로 마시고 잎과 꽃은 요리에 활용한다. 밭에서 벼도 키우고 있다. 세네갈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옥수수, 땅콩도 자라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작물과 특수작물의 재배 양을 더욱 늘릴 예정이다. 현재 본나바 마을에서는 6명의 현지인이 6개의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리주마도 그중 한 사람이다. 사실 그도 처음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토양부터 한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황토지만 여기는 모래땅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자연농업의 좋은 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NGO 더멋진세상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자연농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범농장을 방문해서 일손을 돕고, 자연농법도 배워갔다. 아리주마는 그 누구보다 시범농장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의 꿈이 영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솟아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른 시범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리주마는 NGO 더멋진세상에게 고마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했다. 삶의 질도 향상됐다면서 감사하다고 했다.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온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을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NGO 더멋진세상에게 배운대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 '도로건설 사업'

자연농업을 통해 작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야 했다. 지금까지 본나바 마을 주민들은 생산한 작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왔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밭에 있는 작물을 통째로 판매하다보니 소득이 낮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여야 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이번에는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냈다. 장미호수를 둘러싸 도시로 갈 길이 아니라 사막을 곧장 지나는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획기적인 사업은 현재 25km, 2차선 도로가 건설 중이며 이달(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버스가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본나바 마을 아이들이 타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어른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지금 그곳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본나바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주민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본나바 마을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변화될지 기대가 크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신약의 초대교회 중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비교해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처방, 교훈, 권면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교회와 로마교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혼란스럽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1장은 분열기가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격앙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많은 분열과 다툼과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1장부터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당시 이단으로 치우치고 있던 교회를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교훈에 빠진 자들을 교정하는 책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각양각색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 시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책망과 지적이 가장 적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교회 성도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3-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8절).

8절에 ‘마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심장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장’입니다. 내장(Splanchnic)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시대 사람들은 온 몸을 사로잡는 강렬한 감정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도 ‘Splanchnic’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장에서부터 끌어 나오는 사랑, 온 몸을 사로잡는 강렬한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교회를 향해서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편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서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랑과 감사는 빌립보교회 성도들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고백과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고, 2장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성욕신 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고백했습니다. 3장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4장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족하나 가난하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고백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이는 맞이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한 기간에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충만한 신앙고백을 하고, 기쁨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몇 가지 실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끊임없이 보내준 선교헌금과 사역에 감사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짓교훈을,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쓰였지만 전반적으로 빌립보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충만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이라는 짧은 책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빌 4:4)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기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 15:11).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각 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은 환경과 고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2장은 우리의 연합, 인간적인 갈등, 분열을 뛰어 넘는 기쁨, 3장은 거짓교훈이 찾아갈 수 없는 기쁨, 4장은 경제적인 형편 같은 삶의 긴장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1-2절).

이 인사말 속에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마서와 디도서에서는 종과 사도를 함께 썼습니다. 사도는 영어로 ‘Apostle’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직책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느냐는 오해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만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고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사도 베드로,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름만 부르는데 바울만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만큼은 사도라는 직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싶었던 단어일 것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해도 오해하지 않고, 진심을 이

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종 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종이라고 쓰이는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보다 훨씬 비천한 존재입니다. 노예선에서 배를 짓고,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고, 물건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쓰이던 단어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둘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만큼 익숙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소홀히 여기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업적과 공로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단어가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종교개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평신도라는 단어 속에 가톨릭적인 계급의식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직분도 성도들이라는 호칭을 넘어서 수 없습니다. 누가 감독이요, 누가 집사여야 합니까. 성숙한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여야 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언제나 은혜 뒤에 따라옵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3편에 계속〉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순례자,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인을 일컫는 말이다.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는 순례자의 정체성, 비전, 꿈을 소망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집회참석자 1,125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하는 선포의 장이기도 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같은 고백을 했다. “그래서 나는 순례자입니다.”

/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기자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는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머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한국에 왔는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모이는 안산과 이태원에 찾아가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을 몹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 되신 예수님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것 또한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님 마음

으로 품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 이명희 성도(Point5공동체)



지난 2일 세미나에 참가한 성도들.

“중국인들과 함께 십자가 길 가는”

“우리 부부는 동성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마치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살아갈 목적을 찾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순례자의 길로 초

대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순

례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 김갈렘 선교사, 원금향 사모

(동성교회)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는 2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다. 어느 날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회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완주의 영성’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성도가 많은 목회자, 인기가 있는 목회자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낼 것

입니다. 십자가와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소망하는 목회를 하겠습

니다. 오로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목사(용산중앙교회)



“불씨를 살려내는”

“순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순례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겼습니 다. ‘정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버지학교를 15년 정도 섬겼습니 다. 오랫동안 섬기면서 조금은 지쳐 있었습니 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 다.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불타오르던 열정이 어느새 식어 있었습니 다. 아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

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 내겠습니

다.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하게

만드는, 분이 되는 순례자가 되

겠습니다.”

/ 황규호 성도(와싱턴중앙장로교회)



“시댁식구들 전도하는”

“순례자는 복음과 구원을 전파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 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경주는 시댁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도하면서 남편을 전도했지만, 나머지 식구들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시댁은 일 년에도 몇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이 어려웠습니 다. 불편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 다. 그런 저에게 이번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

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사

를 지내는 추석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추석을 만들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

입니다. 저는 시댁식구들을 전도

하는 순례자입니다.”

/ 유숙경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존 번연(1628~1688)은 영국의 설교가이자 작가이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다. 그는 1645년 당시 내란, 공화정, 왕정 복고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회파에 들어갔다. 1647년 의회군이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청교도 출신 메리와 결혼을 했다. 그때 신부 메리가 가지고 온 신앙서적을 읽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베드퍼드의 위대한 설교가인 기퍼드를 만나 신앙이 더 깊어졌다. 1655년 기퍼드가 죽자 존 번연은 회중들의 간청으로 설교를 하게 됐다.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물려들었다. 당시 국교회(성공회)를 제외한 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다. 결국 1660년 체포되어 12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1675년 두 번째로 투옥되는데 그때 잘 알려진 <천로역정>을 저술했다. <천로역정>은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그렸다. 12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895년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Gale)에 의해 소개되었다.



찰스 스펔전(1834~1892)은 영국 침례교 목사다. 별명이 ‘설교자의 황태자’ 일 정도로 19세기를 뜨겁게 부흥시킨 설교자다. 스펔전 목사의 신앙은 <천로역정>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100번 이상 읽은 애독자였다. “내 혈관에는 천로역정의 피가 흐른다”고 말할 정도였다.

스펙전은 영국 켈비돈에서 태어났다. 2살 때 비국교도 목사였던 할아버지 집에 보내졌는데 어려서부터 청교도들의 경건 서적을 읽으며 자랐다. 15세가 되던 1850년 스펔전은 프리미티브 메소디스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1851년 침례교파에 입문하여 1852년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다. 당시 위터비치의 작은 교회를 담임했는데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과 공부, 심방, 기도, 설교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다.

1854년 20세에 런던 남부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 담임목사로 초빙되어 교회를 부흥시켰다. 1857년 23,654명의 청중 앞에서 설교할 정도로 명성 있는 설교가가 되었다. 그의 설교는 철저하게 청교도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교리를 생동감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해 바른 복음을 전파했다.

메시지

순례자의 영성에서 배운 두 가지 신앙



피터 모든 교수(소펠전대학 부총장)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책입니다. 찰스 스펔전 목사는 ‘이야기 식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로역정>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천로역정>에는 성경 66권 중 51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88년 그가 서거한 뒤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멈췄습니다. <천로역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천로역정>에 순례자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빈 무덤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십자가 앞에서 어깨에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짐을 내려놓는 순간 기쁨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존 번연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십자가의 영향이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

달았습니다.

요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정과 간절함을 되찾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허와 은혜의 손을 뻗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비로소 말씀을 통해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심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십시오.

순례자의 7가지 기독교 신앙

순례자의 7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영성입니다. 구원의 영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진정성,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셋째, 고난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성공할 수 있으며,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천로역정>에서는 그 고난의 삶을 ‘겸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사탄과 맞서 싸워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넷째,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순례자의 길은 공동체와 함께 갑니다.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영성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성화의 영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영성입니다. 성화의 영성은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입니다.

여섯째, 일상의 영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적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완주의 영성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이 있다면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완주의 희망을 꿈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필그림 영성



이재훈 담임목사(온누리교회)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는 순례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 시대를 말하는 데 사상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비열하고, 거짓과 폭력, 음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진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 짓습니다. 모든 이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고, 모든 이에게 해당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되어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개인의 영역으로 가두어버립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현대사회를 사는 순례자들은 유목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유목민은 그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안

주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도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정착하게 하고, 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영성은 시기와 질투, 권력, 파벌, 지역, 정치 다툼으로 파벌이 된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성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모험의 영성으로 선교적 사명을 이뤄가야 합니다. 위험과 모험이 있으면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순례자공동체가 되려면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순례자의 영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탈북민연합 수련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1회 온누리 탈북민 연합수련회, 5개 공동체 271명 참석
통합기구 ‘한누리’ 출범 ...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 하나로!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3만 명 시대다. 그만큼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다. 그들은 통일한국을 위한 마중물이다. 온누리교회에는 우리 곁에 와 있는 그들을 신앙으로 섬기고, 돌보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 서빙고(가양동) 한터공동체, 양재 하나공동체, 부천 한사랑공동체, 남양주 복사랑공동체, 대전 하나공동체가 바로 그들이다. 탈북자들을 섬기는 이들 공동체는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

흩어져 사역하던 탈북민들을 위한 공동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뭉쳤다. 지난달 19일 제주도에서 ‘제1회 온누리 탈북민 연합수련회’를 개최한 것. 271명의 남과 북 성도들이 풍성하게 교제하고, 통일을 소원했다.

‘제1회 온누리 탈북민 연합수련회’는 제주도 사모나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2박3일 동안 진행된 수련회에는 남과 북 성도 271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송악산과 섬지코지, 성산일출봉, 절물휴양림, 김녕해수욕장 등을 둘러보는 순서도 있었다. 쉽도 얻고, 풍성한 교제도 나누고, 한마음 한 뜻으



남과 북의 성도들이 수련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의 장이 펼쳐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특별한 만남도 가졌다. 원 지사는 수련회 마지막 날 깜짝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면서 탈북민들을 격려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에 탈북민 300여 명이 살고 있다”면서 “남과 북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힘써 돕겠다”고 약속했다.

난생처음 제주도에 와본 탈북민들의 반응은 기하 폭발적이었다. 최예성 자매는 “송악산 길이 꼭 함경도 고향길 같았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허송미 자매는 “탈북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여행을 왔다”면서 활짝

웃었다.

한소영 권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김상수 목사는 “온누리교회 5개 탈북민공동체가 연합해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감사하다”고 했고, 허원희 목사는 “남북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며 감격했다.

이번 연합수련회에서 허원희 목사(한터담당)는 ‘한누리’ 출범을 공식선언했다. 한누리는 온누리교회 탈북민 사역을 통합하는 명칭이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탈북민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전략적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이번 한누리 출범으로 그 뜻을 이루게 됐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탈북민사역은 사회선교본부 한누리가 중심에 서서 사역을 관리한다.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교제하면서 더 양질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탈북자 간증

북음통일의 날이 빨리 오기를



표영희 성도
(양재하나공동체)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59년 동안 김씨 일가의 우상 숭배 속에 살았다. 눈과 귀를 막고 살아왔다. 우리 가족은 당의 배려로 해외생

활을 14년 동안 했고, 나름대로 당에 충실하여 살아왔다. 그러나 연좌제(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범죄의 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피할 수 없었다. 우리의 죄명은 돈 횡령과 마약 장사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이었다.

그렇게 북한 당국에 잡혀 끌려가던 중에 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흔히들 교통사고는 불행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고가 행운이었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고를 당한 우리에게 태국 경찰이 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질로 잡혀있는 아들의 구원을 호소했다. 우리의 호소를 태국 총리가 들어주었다. 태국 총리는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했고, 결국 북한 측이 아들을 석방해줬다.

북한은 ‘인민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도 백성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고 우롱해 왔다. 김씨 일가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라고 백성들을 세뇌시켰다. 그렇게 절대주의 독재국가를 만들었다. 배가 고파 죽는 아사자가 300만 명이 발생하는 전대미문의 나라로 전락시켰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난날의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지 않았던 내 입술이,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께 염치가 없다. 그 어리석었던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번 제주도 수련회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북한 땅도 고치고, 풍요롭게 하실 줄 믿는다. 하루 빨리 북한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기를, 그렇게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아멘

목회칼럼

세 가지 질문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본부장)

우리는 모두 외국인인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언어와 문화차이, 때로는 차별 때문에 고생이 따르는 법이다. 우

여곡절을 겪으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어찌 보면 외국인인요, 나그네일 것이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이다.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혹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믿으려 한다. 아무 도움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놓은 우상 혹은 삶은 돼지머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결단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 도움으로 삼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

가?’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방황하며 힘들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부정적 정체성에 얽매어 있다는 점이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이다. 인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하는 것이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선발대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탈북민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여러분의 한국생활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말 선교사, 한국문화 홍보대사 모집”

한국어 선교학교 9월 24일 오후 5시 개강

한국어 선교학교가 첫 선을 보인다. 9월 24일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오후 5시에 개강한다. 한국어 선교학교는 양재 2000선교 국제사역부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9주 동안 진행된다. 우리말 선교사,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김장렬 장로(양재 2000선교), 차춘근 팀장(한국어 선교학교)에게 한국어 선교학교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 진행: 김남원 편집부장, 정라: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한국어 선교학교를 소개해 주십시오.

김장렬 장로: “한국어 선교학교는 훈련 기관이자 선교기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 많은 외국인들이 모두 선교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데 우리말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곳곳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어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한국어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어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는 두 가지 기능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말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어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학교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김홍주 목사: “한국어 선교학교는 한국어 교사로 양성될 온누리 성도, 배우게 될 외국인 이주민 그리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가 바로 언어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외국인 이주민들과 성도들이 만나는 접점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가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문제로 인한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국어 선교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 발 빠르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규석 목사: “맞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삶이 바뀝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한국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어 실력이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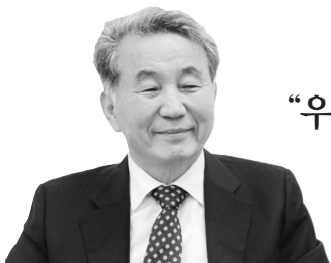
“이주민, 성도, 사회에 긍정적 영향”

김홍주 목사
(2000선교 본부장)



“우리말 선교사, 한국문화 홍보대사”

김장렬 장로
(양재 2000선교)



“한국어, 영혼과 복음 담긴 언어되길”

노규석 목사
(온누리M미션)



“천국 소망하는 회복의 장”

차춘근 팀장
(한국어 선교학교)



받으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은 한국어 실력향상과 더불어 한국인들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학교를 매우 선호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학교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문을 쉽게 열고, 복음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김장렬 장로: “한국어 선교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습방법 뿐만 아니라 선교의 필요성과 전략도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선교지로 가서 한국어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사들의 원활한 파송을

위해 이미 국내 여러 기관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규석 목사: “한국어 선교사의 또 다른 이름은 한국문화 선교사입니다. 해외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사역입니다.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섬길 때 대사가 직접 찾아와 한국어 교실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마을마다 교회는 없어도 한국어 학당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직접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반응이 폭발적일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사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서 복음, 한류문화, 한국어를 전한다면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로 초대해 주십시오.

김홍주 목사: “앞으로도 외국인 이주민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사회가 커다란 선교의 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이여 추수할 때(요 4:35)”가 됐습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는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한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한국어를 매개로 얼마든지 외국인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말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노규석 목사: “한국어가 영혼과 복음이 담긴 언어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이 담깁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들의 언어로 본국에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어는 주머니에 감춰둔 물건 같이 시시때때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선교 도구입니다. 볼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어 교수법은 한 번 배워두면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면 그를 통해 한 가족과 한 민족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차춘근 팀장: “한국어 선교학교는 개인의 영성도 자라게 도와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선교학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역자들과 천국을 소망하는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장렬 장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9주 동안 강의를 통해 누구나 한국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청년부터 은퇴한 중년까지 누구나 한국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다가가 아들, 친구,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한국문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선교사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어서 한국어 선교학교로 오십시오.”

한국어 선교학교

9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9주 동안 진행된다. 한국어 선교의 필요성과 선교전략, 발음, 어휘, 문법, 문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한국어 선교학교를 수료하면 온누리교회 인증 수료증이 발급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차춘근 팀장 010-3290-4506



불만한 영화 - '불의 전차'

파리 올림픽 육상 400m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이야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리우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리우 올림픽은 수많은 믿음의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이기도 했다. 그들의 신앙고백과 간증이 기독교인들은 물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영화 '불의 전차'는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400m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는 선교사이기도 하다. 영화 불의 전차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맨발의 청년들이 해변을 달리고 있다. 그 청년들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영국 국가대표 육상선수들이다. 청년들마다 달려야 하는 이유가 달랐다. 개인을 위해, 국가를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달렸다. 영화 불의 전차 주인공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달렸다.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선교 vs 올림픽

1902년, 선교사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에릭 리델은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신학공부를 마치면 당장 중국으로 달려가 선교를 하고 싶었다. 에릭 리델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은 선교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었다. 달리기에도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달리기 실력을 뽐냈고, 청년시절에는 '스코틀랜드의 바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스코틀랜드에서 에릭 리델과 달리기로 맞설 상대가 없었다. 그는 뛰어난 달리기 실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올림픽에 출전할 것을 권유하자 그와 가족들이 고민에 빠진다.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올림픽에 출전할 것인가.

“선교사가 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달리기까지 내려놔야 하는가.”

매일 고민하던 에릭 리델의 마음이 올림픽 출전으로 기울고 있었다. 올림픽에 출전해 하

나님께 영광을 높일 것을 다짐했다.

“에릭 리델, 주님의 이름으로 달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올림픽 출전을 결심한 그는 어느새 달리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가 달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달리면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릴 끝까지 달리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올림픽이 다가오자 그는 여동생에게 선교를 맡기고 훈련에 집중했다. 그는 영국 최고의 단거리 선수로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드디어 1924년 프랑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프랑스 행 배에 오르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100M 달리기 예선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된 것. 그는 “주일에는 달릴 수 없다”며 그토록 고대하던 출전을 포기한다. 경기출전을 포기하는 그의 행동이 “저렴 필요까지 있나?”,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스코틀랜드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시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철저히 안식을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주일을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라고 부르면서 오락, 스포츠를 삼갔고, 상점들도 문을 닫았다. 대중교통도 운행

되지 않았다. 선교를 미루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 위해 출전을 결심한 올림픽이었지만 주일에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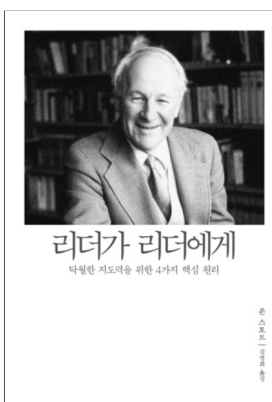
결국 에릭 리델은 경기출전을 포기한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한 순간에 온 국민의 영웅에서 원수가 되었다. 그가 100M 달리기 시합 출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신문 1면에 실렸다. 순식간에 비난과 조롱을 받는 존재로 전락했다. 영국의 왕자까지 에릭 리델을 찾아와 설득했지만 그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 그의 믿음을 보고 감명 받은 동료 400M 달리기 출전권을 양보한 것. 400M 달리기는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이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그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을 알고 계셨다. 아니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성경구절을 적힌 쪽지를 에릭 리델에게 건넸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마 10:32).

에릭 리델은 47.6초로 우승했다. 세계신기록이었다.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던 에릭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영화 불의 전차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질문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서평



좋은 책은 깊은 도전을 주고 새로운 통찰과 결단을 가능하게 한다. 영국의 복음주의 영적 거장 존 스토트의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크리스천으로

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탁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미 그의 책을 접한 독자라면, 스토트의 책이 주는 깊이와 넓이에 빠져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했을 것이다. 필자는 서점에서 스토트의 신간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리더가 리더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이 책(원제: Problems of Christian Leadership)은 기독교 리더십에 관한 깊은 통찰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30년 전, 국제 복음주의기독교학생회 남미지역 간사수련회에서 행한 네 번의 강연 내용을 묶은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출판된 책이지만, 오늘날 크리스천 리더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된다. 서평을 쓴 루스 헤일리 바턴은 이 책을 “명료하지만 평면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만 난해하지 않으며, 쉽지만 피상적이지 않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책이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핵심 원리는 4가지이다. 첫째, 진정한 리더는 낙심을 극복할 줄 알고, 압박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자기 훈련을 통해 영적 생기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관계 영역에서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건강한 권위를 발휘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평범한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책 곳곳에 스토트만의 예지와 경험, 지혜가 숨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저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었다.

필자가 가장 많은 도움과 도전을 받은 두 번째 핵심 원리(자기훈련)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스토트에 따르면,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사역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책임감, 사역에 대한 실망감, 외로움, 개인적인 유혹 등의 다양한 압박 가운데서 어떻게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며 ‘영적 생기’는 단어가 가슴 깊이 다가왔다. 그는 생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이 훈련의 결여에 있다며 세 가지 훈련을 제시하는데, 교회 리더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

침과 휴식 훈련, 시간 훈련, 경건훈련

으로 생각된다.

첫째, ‘침과 휴식의 훈련’이다. 그는 영적인 문제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주 휴가를 보내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고 말하면서, 아프거나 피곤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한다. 쉬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하며, 결혼한 경우 가족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어 줄 것을 권한다. 또한 취미를 가지고 사역 외에 몰두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조언한다.

둘째 ‘시간의 훈련’이다. 하루 일정표를 미리 정하고 아침에 앞으로 펼쳐질 하루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한다.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 두세 시간을 확보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한다. 그는 규칙적인 독서를 위해 하루에 한 시간, 한 주에 서너 시간을 내어 주당 열 시간을 확보한 후 매주 한 권씩 매년 50여 권의 책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달 하루를 따로 떼어 고요한 날로 보내며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을 강력히 권하는데, 스토트 자신이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통해 바쁜 목회와 사역 가운데서 새로운 활력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셋째 ‘경건 훈련’으로, 스토트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권한다. 성경읽기의 경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일상이 되기 쉬우므로 영적 생기를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경을 대할 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중요하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비결이기에 마귀는 우리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들게 한다. 크리스천 리더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리더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그가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이 책은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 원리들을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소개한다. 감사하게도 책 분량이 얇고 내용 또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다.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들이 새로운 마음과 기대로 2학기를 보냈으면 한다.



이창규 목사
(서빙고상담센터)

한누리 학사(탈북 여대생 기숙사) 개관

서울소재 대학 재학 탈북 여대생 모집

탈북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한터에서 탈북 여대생들을 위한 기숙사 ‘한누리 학사’를 개관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탈북 여대생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누리 학사의 정원은 5~6명이다. 단 보호자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알림판에 있는 첨

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우편이나 이메일(abel26@onnuri.org)로 전송하면 된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누리 학사는 2인 1실이다. 아침과 저녁 식사, 침대와 옷장 등이 제공된다.
문의: 02-3463-9686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청산빌딩 7층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미래관 이용 후기



김국철 형제
(한터공동체 대학청년부)

나는 열여덟 살에 한국에 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삼촌 집에서 지냈다. 삼촌은 일이 바빠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했다. 스무 살 때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당시 기초수급비로 받았던 40만원으로 월세와, 식비 등을 감당해야 했다. 백원이 모자라서 빵을 못 먹을 때도 있었고, 아침밥은 늘 라면이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올라와 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터에 오게 됐다. 살 곳이 없었던 터라 미래관(한터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내 삶이 180도 달라졌다. 한터에 온 이후로는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다. 정말 배불리 먹었다. 먹는 것이 해결되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마음 다해 챙겨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께 너무 감사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됐다. 한터에 와서 활발했던 나의 성격을 되찾았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누리 학사에 신청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 좋다.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다. 직접 와봐야 안다. 얼마나 좋은지는.

서빙고, 양재 찬양사역팀원 모집

등록 및 세례교인,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한 성도

서빙고와 양재 캠퍼스 찬양사역팀원을 모집한다. 서빙고는 9월 4일(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관로비, 양재는 9월 4일과 11일에

사랑홀 로비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빙고 1~4부 찬양사역팀과 찬버사역팀원, 양재 2~4부 찬양사역팀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및 공동체 소속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찬버사역팀은 악기 전공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38(서빙고)
02-570-7437(양재)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서빙고 사역팀	모집내용	양재 사역팀	모집내용
1부 주찬양 찬양사역팀	문의: 010-8736-7311	2부 주이빛 찬양사역팀	일시: 9/4, 9/11 (주일) 10시 30분 장소: 두란노홀(숙소동 지하1층) 준비: 자유곡 1곡(CCM, 찬송가), 반주자 악보 지참
1부 찬버사역팀	오보에, 콘트라 베이스/문의: 010-3414-0268	3부 뮤지컬 찬양팀	일시: 9/4, 9/11일 오후1시 장소: 비전홀B(지하식당 안쪽) 준비: 자유곡 1곡
2부 주사랑 찬양사역팀	문의: 010-6397-3503	4부 주기쁨 찬양사역팀	일시: 9/4, 9/11 (주일) 오후 5시 장소: 두란노홀(숙소동 지하1층) 준비: 찬송가 1곡(필수)
2부 찬버사역팀	바이올린, 비올라/문의: 010-7127-7786		
3부 주향한 찬양사역팀	문의: 010-3866-8633		
3부 찬버사역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문의: 010-3085-6111		
4부 온누리 워십과이어	문의: 010-2448-0502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빙고와 부천 온누리교회가 연합해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를 개강한다.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1주차는 부천 온누리교회 비전홀, 2주차는 진새골 사랑의 집, 3~4주차는 1박2일로 소망교회수양관에서 열린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

스쿨, 홈페이지(www.onnurifamily.com)에서 하면 된다. 24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가정당 30만원. 자녀를 동반할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1993년에 시작되었다. 가정의 성경적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부 대화, 성, 치유, 하나님의 가정 원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평택 1기 순장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평택 1기 온누리 순장사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30분 평택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가정, 순 모임, 이웃리치, 성령수련회, 순장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현재 다락방장, 순장, 예비 순장 부부내외는 이번 순장사관학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구궁회 집사 010-9062-8600
/ 김영선 기자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모집

서빙고 18일, 양재와 남양주 25일 개강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서빙고 9월 15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8시50분 홍보관, 양재 9월 25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 강의동 305호, 남양주 9월 25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주일통합 접수데스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서

빙고와 양재 4만 원, 남양주 2만 원이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5분 전도와 반대질문에 대한 대답, 여러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

‘온누리교회 전도지’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문의: 김연선 간사 02-3215-3532
/ 이소정 s2868@onnuri.org



동부요양센터 개관 11주년 감사예배

“힘을 얻고, 위로 받는 센터 되기를”

온누리복지재단산하 시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이하 동부요양센터)가 지난 1일 개관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개관 11주년 감사예배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조항진 장로, 송영범 장로, 임소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예배에서는 민병애 어르신 외 7명이 선보인 핸드벨 연주가 참

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종길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세상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자”면서 어르신들을 축복했고, 송영범 장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센터, 어르신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요양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스리랑카 긴급구호사업

피해가정 구호품, 어린이 1천 150명에 학용품과 신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달 6월부터 19일까지 홍수피해를 입은 스리랑카 디코위타와 맛딱폴리어 지역에서 긴급구호사업을 펼쳤다.

NGO더멋진세상은 이번 스리랑카 긴급구호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입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북쪽 켈라니 강가 강 하류지역 주민

1,000가정에 구호품을 배분했다. 또한 어린이 1,150명에게 학용품과 신발을 제공했다.

스리랑카 코이카사무소측은 “재난에 취약한 이 지역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성장과 치유 위한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

서빙고와 양재 상담실에서 ‘성장과 치유를 위한 집단상담’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상담실은 11월 9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양재 상담실은 10월 4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단상담을 실시한다.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793-2997~8, 양재 02-570-7536~7

여름 아웃리치, 그 못 다한 이야기

2016 여름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그 감동은 아직도 남아있다. 여름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요청이 빗발쳤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아웃리치의 감동을 담았다. / 편집자주

대만에서 온 편지



Samuel Steven Jr.
(스린 링량탕교회 청년부)

인 이유 때문예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라 온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96세인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적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에 한국인이 다가와 길을 물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길을 해매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모른 척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출근길에서 마주쳤던 한국인을 또 만났습니다. 그때는 한국인들을 도와주려고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한국인들을 자주 만나게 하시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4일 한

“한국 친구들 덕분에”

국인들이 내가 다니는 스린 링량탕교회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습니다. 길공동체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팀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 친구들과 함께 아웃리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길공동체 청년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민족을 품고, 네 이웃

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 한국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전하겠습니다.”

길공동체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서초C공동체_중앙아시아 A국



남주연 성도
(서초C공동체)

었다. 그 일로 선교사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A국을 다녀왔다. 무슬림이 80%인 이곳은 선교사들이 비자 받기 아주 까다로운 곳이다. 지난해에도 이곳으로 아웃리치를 오려고 했지만 불발되었

었다. 중앙아시아 A국을 가려면 최소 2~3일이 걸린다. 현지인들의 외모와 우리의 외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주의해야 했다. 팀원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 뉘를 체험하라(시 46:10~11)’를 주제로 11명이 중앙아시아 A국으로 떠났다.

이곳은 경제사정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였고, 남은 여성과 자녀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선교사들은 주로 NGO를 통해 여성사역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뉘를 체험하라

재봉틀 선교가 각광을 받고 있다. 서초C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재봉틀 후원금을 마련했다. 현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는 공동작업장을 방문해서 후원금을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물을 흘리셨다.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셔서 고맙다면서 우셨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의료사역도 할 수 없었다. 필요한 식품과 의약품, 기념품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사역 대신 보건교육과 구강교육을 했다. 현지인들을 축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K선교사님의 자녀 돌잔치도 했다. 12개국 여성들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벽화도 완성하였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보내 주셨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돌아오는 날 팀원들과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믿는다.

서초D공동체_괌



조정운 성도
(서초D공동체)

들은 용돈을 아웃리치 비용으로 현금했고, 집안 곳곳에 있던 저금통도 모두 모았다. ‘어디

괌으로 생애 첫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드리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용돈을 아웃리치 비용으로 현금했고, 집안 곳곳에 있던 저금통도 모두 모았다. ‘어디

든 가리라.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지’라며 그곳에서 어떤 은혜가 펼쳐질지를 기대했다.

아웃리치 지역이 괌으로 결정되었다. 괌에서의 주요사역은 페인트칠이었다. 유명여행지에 페인트칠뿐이라니... 기대했던 것과 달리 우리 가족의 첫 번째 해외 아웃리치는 심겁게 끝날 것 같다는 투정이 커져만 갔다. 아웃리치 첫 번째 준비모임에 참석했다. 그런데 나에게 아이들과 함께 특순을 맡아달라고 했다. 영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괌까지 가서 아이들 특순을 맡아야 하나 불통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이든 괌이든

청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가 사명이라 생각하며 섬겼지만 성인공동체에 와서는 순모 역할만 하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어린이 찬양 특순을 맡기셨다.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해도 주님은 해야 할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새삼 깨달았다.

주님은 서울이든 괌이든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만 알파이고, 오메가임을, 입술과 율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연습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순간이 가장 좋았다. 웃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기도할 때면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아웃리치에 4살 어린이부터 연로한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허투루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괌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어진 고된 노동을 경험하면서 고작 페인트칠 정도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땀으로 흘려 흘려 와중에도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세워주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술선수 범했던 공동체 식구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도 하루하루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다. 다음 사역은 또 어떻게 채워주실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강촌공동체_남아시아 F국



김형기 집사
(강촌공동체)

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전 모임부터 아웃리치를 위한 금식, 릴레이 중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생각조차 안 해본 땅에 가겠다고 결정한 이 후부터 F국을 향

기도까지 참 열심히 했다. 그렇게 남아시아 F국을 향한 21인의 뜨거운 여정이 시작됐다.

남아시아 F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Y선교사님께 그간의 일들과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기도하고, 현지인 성도들과 함께 T목사님 댁에서 순예배를 드렸다. 서울에서 드리던 순예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말은 안 통해도 기쁨이 충만한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목사님의 고백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21개의 퍼즐 조각 맞추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역자들, 성도들이 무척 귀하게 느껴졌다. S교회에서는 마약중독에서 벗어나 재활훈련을 하는 F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H지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함께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동굴을 지나는데 입구 쪽에서 스며들어오는 한줄기 빛이 보였다. 그 광경을 보면서 수천 년을 간직해 온 비경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는 것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인들과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특히 그 나라 말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던 6학년 마이라는 어린이가 기억에 남는다. 마이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와의 만남을 떠올릴 것이다. 마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올지 기대가 된다. 이번 아웃리치는 21명 조원들의 서로 다른 모습의 퍼즐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맞춰가는 현장이었다.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정유정 성도(전도폭발 1단계 수료)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다

나는 불교신자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의심이 긴 시간 동안 쌓였고, 1년 6개월 전에 교회에 왔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았지만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전도사님께서 전도폭발훈련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셨다. 선뜻 내키지 않았다. 외울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거기다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했기에 다음에 해야겠다고 거절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묵상하는 말씀마다 영혼구원으로 적용이 됐다. 결국 나는 수강신청한 과목들을 취소하고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게 됐다.

외울 것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이 깨졌다. 전도전문의 한 구절, 한 음절까지 모두 은혜였다.

주님은 여러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셨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도한 아들 친구의 엄마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물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그녀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그녀가 본

인은 기복신앙인이었다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 평소 연락이 없던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소식이 왔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결신하게 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이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 갔더니 전도대상자 스스로 우리집에 와 있기도 했다. 아이 학교 바자회 날에는 물건을 팔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보다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 완강하던 친정 식구들 중에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언니와 나를 보면서 부모님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천주교신자인 시댁 어른들도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내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나의 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다.

내적치유학교 간증



/ 양소망 성도(가명)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적치유학교를 수료한 적이 있었지만 엄마의 내적치유를 위해 함께 참가했다. 나는 이미 경험해봤기에 이번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나눌 내용이나 거쳐야 할 과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알기’ 강의를 듣는데 친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의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았다. 나의 친아버지는 폭력형, 부재형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인정, 안정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결핍으로 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다. 나의 결핍을 잘못된 방향으로 채우고,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깨달았더니 나의 결핍을 못 채워 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동시에 아버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내가 미웠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계속 눈물이 났다. 십자가 예식에서 나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그 상처를 마주해야만 했다. 하염없이 울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주님, 제가 외롭고 사람들로 부터 상처 받았을 때 어디에 계셨어요? 왜 저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나요?”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순수한 마음으로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내가 상처 받을 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숨긴 채 찬양을 계속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더욱 커졌고,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었다. 찬송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성법이 달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는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상황과 상처를 주시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미움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두 가지 감정이 계속 반복되다 어느 순간 평안해졌다. 주님과 화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다시 찬양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마승훈 성도(SNS공동체)

내 인생의 전환점

군대에서 주말마다 종교행사에 가야 했기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기독교를 선택했다. 전역하고는 자연스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여자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다. 오랜만에 나온 교회에서 듣는 찬양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지만, 그뿐이었다. 교회에 다닌 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2개는 천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 가고, 의지하며, 매일 매일 기도하는 삶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누군가 내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여자친구는 내게 큐티와 일대일 제자양육을 권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흐릿하던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가왔다. ‘왜 나눔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됐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강건해졌고, 주일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단지 찬송과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흥미를 잃으면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그런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 나의 주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고민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대하는 마음이 변했다. 더 이상 내가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꿈꾼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금요회복예배 회복소그룹 ‘기쁨의 샘’ 수료 간증



/ 박승리 성도(가명)

우울증과 한 판 싸움 중인 분들에게

나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찬양은 무덤덤해지고, 설교의 은혜는 사라졌으며,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었다. 우울증은 계속 심각해졌다. 체중은 단기간에 14kg나 빠지고, 다리에 마비증세가 왔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도저히 회사에 나갈 수 없었다. 최후 수단으로 2013년 여름, 인천의 M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었다. 무척 절망스러웠다. 병원을 찾아온 아내에게 “모든 게 소용없다. 재산 모두 줄 테니 이혼하자”고 했다.

“난 당신 절대 포기 못해. 성경 다시 읽어. 당장!”

그날부터 밥 먹는 시간 빼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웠다. 병원생활 2달이 지날 즈음, 각종 중독자들이 모인 곳에서 온누리교회 회복소그룹 인도자 K님을 만났다. 여러 가지 책과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를 들려 주셨다. K님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붙들었던 말씀들을 제대로 소개해 주셨다. 7쪽으로 압축된 성경구절

이 나의 생명줄이 되었고,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때 즈음 우울증을 한번에 날려버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신 32:10).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 이전과 다른 새 삶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맞이하는 새날, 햇빛, 시원한 바람, 이름 모를 꽃들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다. 기억력과 체력을 되찾고, 우울증과 각종 중독에 걸린 환우들을 섬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다. 올해 봄부터 온누리교회 금요회복예배 ‘기쁨의 샘’ 소그룹도 섬기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인 우울증과 한 판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형제자매님들, 저희보다 앞서 행하시며 적진을 부수어버리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찾아 올 것입니다.”

장로칼럼

공감을 파는 가게



심상달 장로
(사랑의줄잇기사업팀)

사랑의 줄잇기는 2002년 추위에 떠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스위스에서 온누리교회를 찾아온 한 여인에 감동받아 안입는 옷 한 벌을 모으는 기부문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 광장에 ‘사랑의줄잇기’ 가게가 문을 열었다. 기증품도 일부 팔았지만 주로 의류를 위탁판매했다. 판매 수입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금 전액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단체에 지원하는 착한가게를 운영했다. 2014년 사랑의줄잇기가 신동아쇼핑센터 1층으로 이전했다. 의류판매가 주업인 상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류판매까지 중단했다. 사랑의줄잇기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의류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삭이 우물을 이방인들에게 뺏기면 새 우물을 파던 것처럼 새로운 우물을 파기로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로 했던 초심을 회복하고, 가게의 정체성을 ‘공감을 파는 가게’로 확립하기로 했다.

2016년 6월 네이버 스토어팜에 쇼핑몰(www.empathyshop.co.kr)을 열었다. 이 쇼핑몰이 예수바보(체인지메이커, 선교사, 사역단체, 사회적기업가)를 지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공감을 파는 가게(On-Offline)와 착한가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동안 사랑의줄잇기에서 좋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기부가 이루어지고, 사랑의줄잇기 운영위원회가 판매수익금의 사용 목적을 정했다. 그것이 착한가게다. 반면 공감을 파는 가게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사용 목적을 직접 정한다. 판매수수료가 어떤 일에 기부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을 명기한다. 상품을 사지 않고도 소개되어 있는 예수바보에게 직

접 현물을 기부하거나 공감을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 역할도 한다. 플랫폼이 소개하는 일명 예수바보의 스토리에 공감하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이 스토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좋아요’를 한번 클릭하면 200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1,000원을 사랑의줄잇기가 해당 예수바보에게 기부한다. SNS와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대중으로부터 모금하는 스토리펀딩이 발전되고 있다. 기부를 하면 상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Share N Care는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공유하면 모인 금액을 제3의 기관(기업 또는 재단)이 펀딩을 해주도록 연결하고 있다.

사랑의줄잇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8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2015년에는 전년 수익의 3분의 1 수준(3천 2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사랑의줄잇기에 신청하면 금액을 감액한 경우는 있지만 지원을 못 해준 적은 거의 없었다. 공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곳에 지원할 때는 가게의 매출과 수익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착한목적에 사용할수록 매출이 더 높아지게 하셨다.

지금은 네이버의 스토어 팜의 방 하나를 빌려 쓰는 형식이라 공감하는 목적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방법이 없지만 누구를 지원할지를 표지화면에 매달 소개하고 있다. 6~7월에는 위기청소년들을 돕고 있는 명성진 목사님, 8월과 9월에는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노국자 권사님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랑의줄잇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공감을 파는 가게 취지에 공감하는 상품과 공급자들, Online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네이버에 ‘사랑의줄잇기’를 검색하고 쇼핑몰에서의 구매후기를 올려주는 적극적인 공감소비자들이 필요하다. 교회와 선교기관과 선교현장이 융합하여 예수바보행전을 써내려가려는 온누리교회 선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권사칼럼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나소혜 권사
(OCC공동체)

나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요셉공동체 멘토로 섬겼다. 그 후에는 사이닝글로리를 섬기면서 인연이 된 SNS공동체 담당목사님이 내게 멘토로 섬겨줄 것을 권유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고 2014년부터 SNS공동체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SNS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모여 주일예배를 위해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도 청년들의 기도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쉬고 싶은 토요일에 매주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감동받은 것이 있다. 기도모임에 목사님이 빠졌없이 오신다는 것이다. 중보기도팀장이 기도회를 인도하지만 목사님이 꼭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인원이 공동체 인원의 십일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1년 만에 이루어졌다. 70명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2~3개월 만에 400명, 6~7개월 만에 700명으로 늘었다. 딱 1년 뒤 기도모임에 70여 명이 참석했다. 공간이 좁아서 다닥다닥 붙어 앉을 정도다. 지금은 9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서일까. 예배가 살아났다. 예배 안에서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청년들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믿음의 뿌리가 잘 뻗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기도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는 A자매가 기억난다. A자매는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런 A자매가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드린 기도가 중언부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A자매는 꾸준히 기도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 것이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자매가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원했던 일터에서 일하게 됐다. A자매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시간만큼은 꼭 지킨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러진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고 있다.

나는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멘토 한 사람의 기도가 청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자녀처럼 함께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멘토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기도나 한마디 격려로 전할 수 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청년들 중에 부모가 이혼했거나 본인이 이혼한 청년들도 있다. 가정이 불안정하다보니 직장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성인공동체 성도들이 청년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안정을 되찾고 마음이 든든해 질 것이다.

나는 종종 청년들에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입술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권면하곤 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김윤식 목사
(여호수아공동체)

뜨거운 아웃리치의 계절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나는 이번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주요사역이 노방전도였기에 더위가 식은 저녁이 되면 사람들을 만나러 공원으로 나갔다. 공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가봤더니 모바일 게임 ‘포켓몬 GO’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원 곳곳을 비추며 화면 속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들을 찾고

있었다. 우리는 게임에 몰두한 그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태권무도 하고, 워십댄스도 하고,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소외감이 들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와 서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비춰진 가상현실에서 기쁨을 찾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무척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스마트폰을 자주 이용한다. 쇼핑을 하면서 물건의 최저가격을 검색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 발견한 식당의 평점을 찾아보기도 하며, 아름다운 경치를 카메라로 담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 실제의 감각보다 모바일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사회에 소비가 많아지고 정보기술과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실체가 아닌 가상의 기호와 이미지가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가치와 이미지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동화 <플란다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의 소원은 성당에 걸린 루벤스의 그림을 보는 것이었다. 네로가 돈이 없어 볼 수 없었던 루벤스의 그림을 오늘날 우리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심지어 명화를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치와 이미지를 소비하고, 소유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 걸까?

<플란다스의 개>에서 네로가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그림은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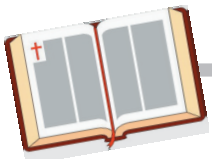
그림이다. 돈이 없어 볼 수 없었던 네로는 결국 죽기 직전에야 소원을 이룬다. 네로는 유일한 친구 늑개 파트라슈와 함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루벤스의 명화를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파트라슈와 함께 일어 죽는다.

우리는 왜 그토록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더 만족하기 위해 애쓰는 걸까? 현실을 넘어 가상의 무언가를 찾으려만 할까?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전 3:11).

우리 안에 있는 영원을 향한 갈망은 결국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될 것이다. 유한한 가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만족를 찾고 누리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

갈망은 결국 영원한 것으로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5~7절).

중요한 단어가 ‘동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참여’라고 번역했고, 개역성경에서는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번역했습니다. 동참, 참여, 교제라고 번역된 원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가법계 번역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뜻한 차 마시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파트너, 협력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에 참여했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 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서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소식을 알려면 누군가 가야만 했고, 누군가 와야만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주려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교회가 세워질 때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전도하려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고, 성문밖에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 전도하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귀신들린 여종을 내쫓았더니 오히려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 가 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빌립보교회는 루디아 여인의 가족과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의 코이노니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7절).

5절에서는 복음에 동참했다고 했고, 7절에서는 은혜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내 것을 나누면서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 바울과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이루신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6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완전이요, 보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요 6:39).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요 10:28).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책임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히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골 1:23).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온전히 이루신다는 확신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실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의 코이노니아, 은혜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함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더욱 힘써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고_그리스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김진연 집사
(서빙고공동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요충지에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있다. 면적 2.11㎢(이촌1동의 70% 면적)인 이곳을 ‘야르묵 캠프’라고 부른다. 최대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군과 반군들이 중립을 유지하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어느 한쪽 편에 서도록 강요했다. 그들은 정부군과 반군에게 포위당한 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쥐와 고양이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집단 기아상태에 놓였다. 어쩌다 UN이 제공해주는 식량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갈 곳 없던 그들에게 또 한번 시련이 닥쳤다. 알카에다와 IS가 쳐들어와 약탈, 살인, 집단처형, 성폭행 등 잔악행위를 저질렀다.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그들이 전 세계에 구조신호를 보냈지만 외면당하고 말았다. 지금도 그 캠프에는 팔레스타인 난민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시리아의 다른 캠프로 이동했거나 UN에서 발행한 난민증을 들고 난민행렬에 합류했다.

여전히 160만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으로 살고 있다. 그 중 45만 명은 레바논에서 이동과 직업선택의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다. 사실상 억류상태이다. 야르묵 캠프는 난민들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나는 올해 3월 터키, 예게해 그리스섬들, 아테네, 발칸반도, 서유럽을 다니면서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7일에는 그리스로 향했다. 그리스에서 만난 유경석 목사님을 따라 아가페 미니스트리 교회로 향했다.

나는 그리스에서 유 목사님 외에도 야르묵 캠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한 팔레스타인 젊은 부부도 만났고, 여러 난민 캠프를 방문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말로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가페교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캠프는 상황이 정말 끔찍했다. 텐트로 세대를 구분하고, 바닥에 종이박스와 매트리스, 담요를 깔고 길게는 1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냉난방 시설은 고사하고, 화장실, 샤워실, 세탁시설도 거의 없었다.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다. 악취가 진동하고,

대부분의 난민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쉽게 성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식사는 마카로니, 빵, 스파게티 등이 배급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캠프에 기부금이 있을 때 세끼를 먹을 수 있고, 보통은 한 끼나 두 끼 정도 먹는다고 한다. 어떤 난민들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려고 30분에서 1시간 반 걸리는 난민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다고 한다.

그리스에는 여전히 6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난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곳의 선교사님들은 그리스에서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새로운 사명으로 여기고 계셨다. 난민들을 대신해 국경을 열어줄 수는 없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몇몇 장소에서 봉사팀들이 난민들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무슬림들이 그 섬김에 감동을 받고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고 한다. 무슬림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한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은 사랑이며, 예수님의 죽음이 사랑의 결과임을 꼭 알기를 바란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정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꿈꾸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꾸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과워워이프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꾸어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플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안민경 간사(02-3215-3523)

CMN 의료 BEE 팀 아웃리치 봉사

자 모집

일시: 매달 둘째 주주일 사역,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사역: 의료, 마용, 한방, 진료지원, 경로 등

회비: 1만원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의료인, 비의료인, 약사, 간호사, 청년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의료 BEE팀 서울역 노숙인

사역

일시: 매달 3주목요일 오후 6시30분~9시

장소: 두란노홀(서빙고 양재 캠퍼스 모두)

사역: 6:30분 예배, 7:30분~9:00 의료 사역

대상: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든 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2017년 상반기(1월~7월) 온누리교

회 결혼예배 예약안내

일시: 9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두란노홀(서빙고 양재 캠퍼스 모두)

자격요건: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

님(총 6명) 중 한 분이라도 온누

리교회 등록교인이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

(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준비사항: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

서지함.

선정방법: 오후 7시까지 참석자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번호 순

으로 결혼예배날짜선정 예약.

안산 온누리M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위한

문화강좌 개설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4-6시

모집: 네일아트,메이크업(뷰티),예쁜 글씨

(pop),K-pop(노래교실),MOS 엑셀

문의: 권경민 간사(031-491-9650),

김재현 집사(010-2724-4563)

안산 온누리M센터 건물관리인 모집

근무시간: 월-금,오후3시~오후10시

우대사항: 전기, 소방 자격증 소유자 우대

급여: 추후 협의

문의: 윤웅국 목사(010-9920-7019)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

사 모집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문의: 이경숙 원장(010-5034-0092)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어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플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한 영혼에게 더 멀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가 되겠습니다.



1 조선을 사랑한 여인, 서서평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조선 사랑에 삶을 바친 '작은 예수'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섬김의 삶을 영상에 담아
스크린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2 품성한 콘텐츠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반기 IPTV 기독교 채널 시청률 1위,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QT> K웹페스트 수상,
CGNTV Korea와 KNOCK 페이스북 누적 재생수 1천만 기록,
시청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3 미디어 선교의 비전 한국교회와 나눕니다



지난 여름, 미디어 사역의 갈급함이 있는 곳에 찾아가
'제1회 CGNTV 미디어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미디어로 복음을 더 멀리 전하는 일,
한국교회와 함께 합니다.

CGNTV



4 선교지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땅끝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드림온 안테나가 1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믿음선교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10월 2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KEB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CGNTV